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가치는 ‘연대와 협력’

ポストコロナ時代、中核的価値は「連帯と協力」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人口10万人当たり発生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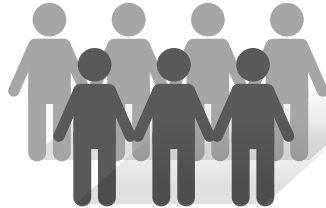
사망자 수 死亡者数

9.10명



경남·慶南

50.0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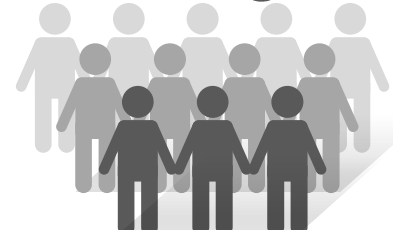


전국·全国

0명

경남·慶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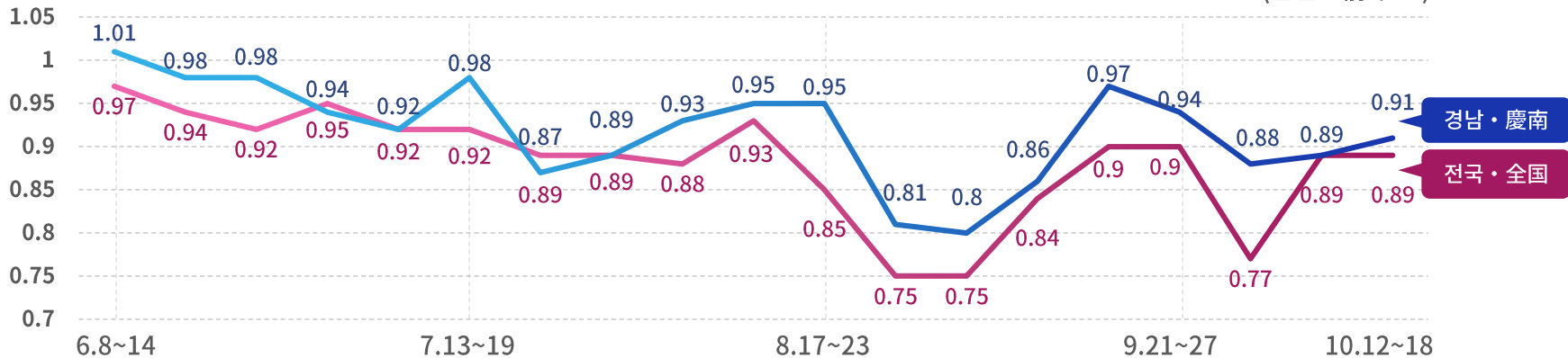
457명



전국·全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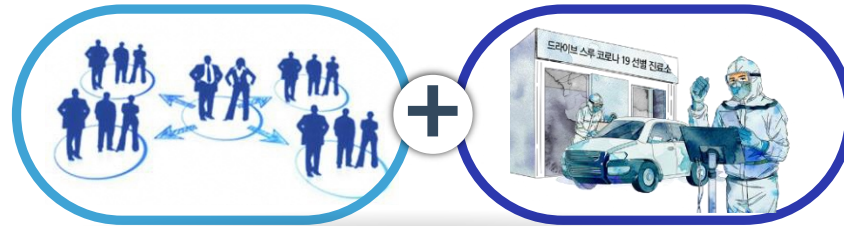
전년 동기대비 소상공인 카드매출 현황 前年同期比、小規模事業者のクレジットカード決済による売上高の推移

(전년·前年=1)



발생초기부터 선제적 대응 初期段階から先制的に対応

역학조사관
확대 배치
疫学調査官の
配置を拡大



신속한 대규모 진단검사
(91,868명)
迅速かつ大規模な診断検査
(91,868人)

민관 협력을 통한 방역 거버넌스 구축 官民協力を通じた防疫ガバナンスの構築

An icon showing a person on a computer screen, a laptop, and a document, with arrows indicating a cycle of communication.

도내 18개 시군과
영상회의(매일)
道内18市・郡との
オンライン会議(毎日)

+

An icon showing three people in medical or professional attire, with arrows forming a circle around them, representing a network of cooperation.

지역 의료진과
긴밀한 협조
道内医療関係者との
緊密な連携

+

An icon showing three people in business attire, with a rainbow arching over them, representing a coalition or partnership.

도-교육청 협력 강화
(통합교육추진단)
道・教育庁の連携強化
(統合教育推進団)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

防疫と経済の両立



긴급재난지원금

緊急災難支援金

정부형 지원금에 추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지원

小規模事業者・
社会的弱者への緊急支援

정책자금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유연한 지역별 업종별 대응

地域・業種に合わせた
柔軟な対応

확진자 발생지역,
업종 대상 핀셋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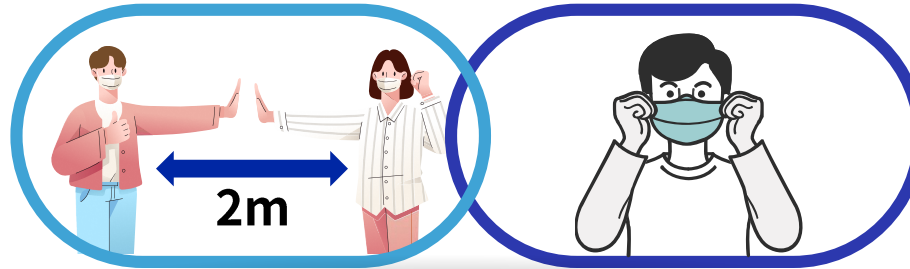
민간의 자율 방역 강화 유도

自発的な防疫活動の
強化を呼びかけ

소상공인,
PC방 등

생활방역 체계 구축 「生活防疫」体制の構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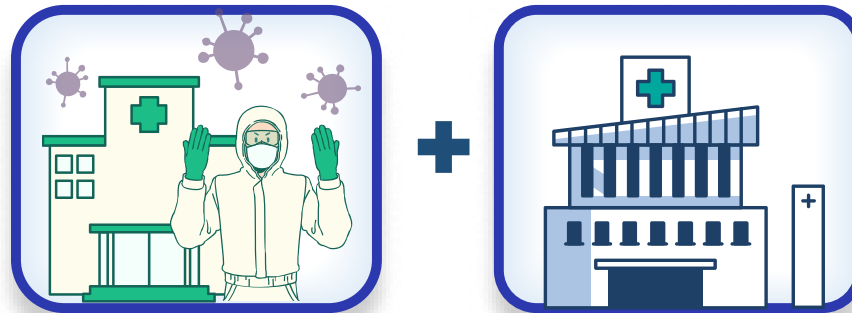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社会的距離の確保



마스크 착용 의무화
マスク着用の義務付け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公共医療サービスの拡充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嶺南地域をまたぐ
感染症専門病院の設立



공공병원 확충
公共病院の拡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민생경제

ポストコロナ時代に備えて⁵ -生活に根付いた経済対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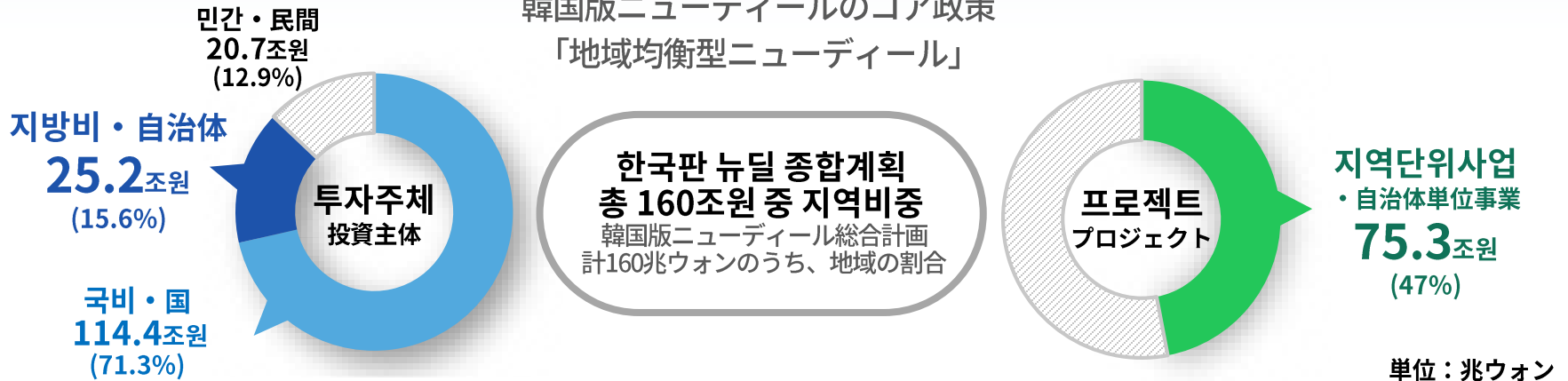
한국판 뉴딜과 함께 가는 경남형 뉴딜 추진

韓国版ニューディールと歩調を合わせた慶尙南道型ニューディールの推進



한국판 뉴딜의 핵심 '지역균형 뉴딜'

韓国版ニューディールのコア政策
「地域均衡型ニューディール」



지역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 이동

地域を中心に、国の発展軸の移動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가치는 “연대와 협력”

ポストコロナ時代、中核的価値は⁷
「連帯と協力」

민관협력
官民協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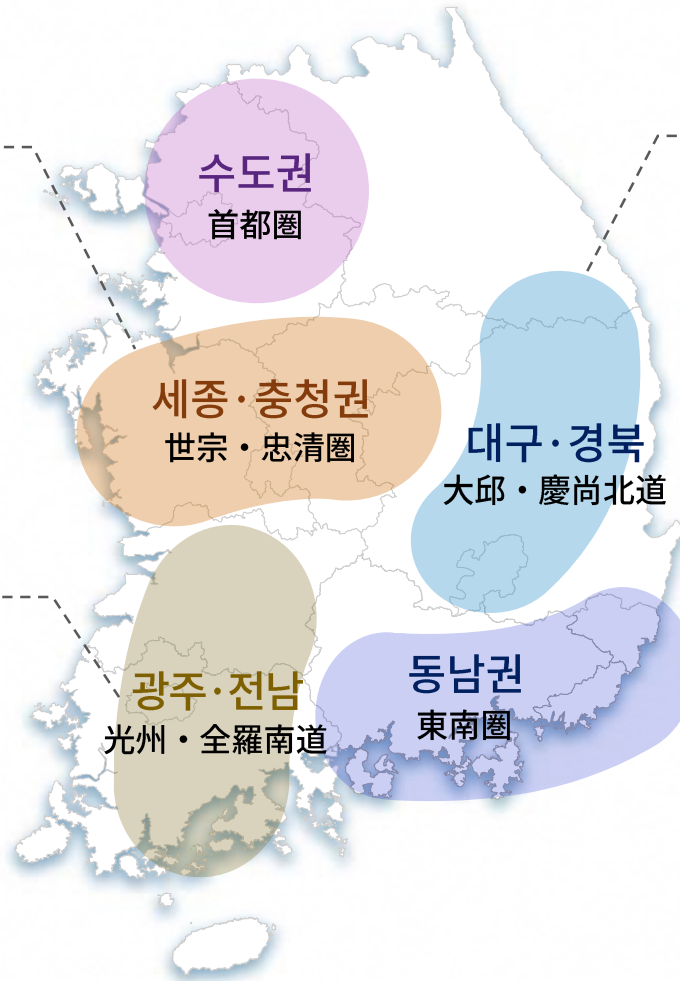


협치 강화
ガバナンス強化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가치는 “연대와 협력”

ポストコロナ時代、中核的価値は 8
「連帯と協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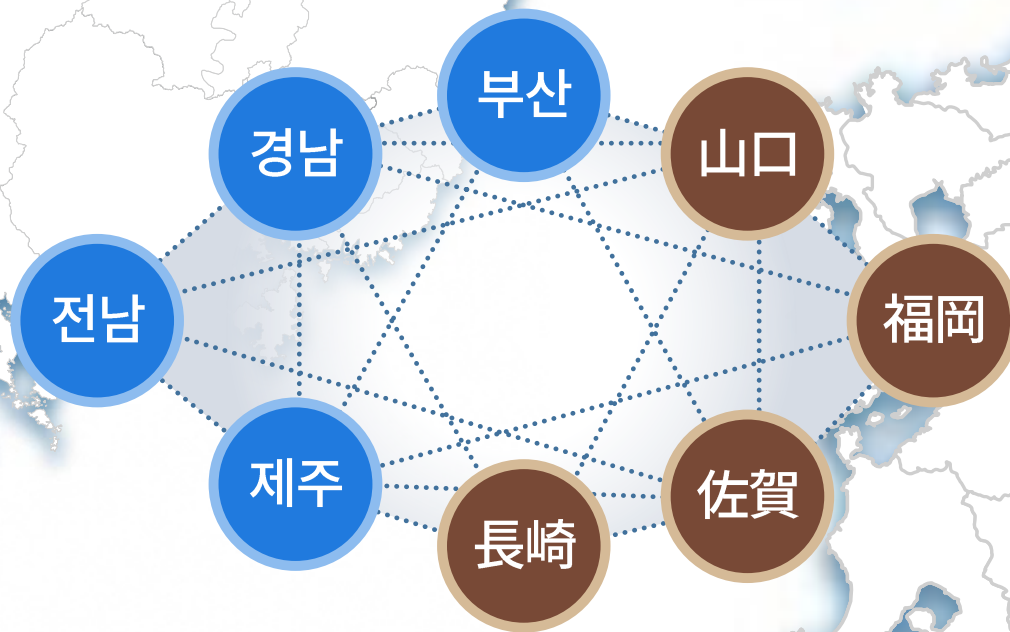
시도간 경쟁 → 권역별 협력 통합
市・道間競争 → 圏域別協力・統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가치는
“연대와 협력”

ポストコロナ時代、中核的価値は⁹
「連帯と協力」

지역내 국가간 협력 강화
域内諸国との協力強化



동북아 지역 연대와 협력 강화
北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連帯・協力の強化

30년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30年を迎える日韓海峡沿岸県市道交流知事会議!

코로나 이후시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줄
‘오래된 미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ポストコロナ時代に私たちが共に歩むべき方向を示す
「懐かしい未来」となりますようお祈りいたします。

